

## “바람 잘 드는 마루를 벌써 쓸어놓고 기다리오” - 선비의 편지

최호

2009년에 정조가 노론의 지도자인 심환지에게 보낸 어찰 299점이 공개돼서 세간에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임금이 직접 쓴 편지라고 하는 점이 일단 관심을 끌지만 무엇보다도 일반인도 아닌 임금의 편지에서 ‘호로자식’이니,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는가.’ 하는 상스러운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을 끌었다.

당시 공개된 간찰은 정조가 직접 쓴 어필이고 그 내용이 파격적이라서 화제가 됐지만, 사실 조선시대의 웬만한 선비들이면 적어도 수십 통에서 수백 통, 많게는 천여 통에 이르는 간찰을 남긴 사람이 적지 않다. 이처럼 많은 간찰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였다가 나중에 문집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수록하게 되는데,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 사이의 유명한 ‘사단칠정논쟁(四端七情論爭)’은 두 사람 사이에 무려 8년간이나 편지를 통해 주고 받으면서 진행된 논쟁이었다.

강릉을 연고지로 한 조선시대의 지식인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은 매월당 김시습과 율곡 이이, 그리고 교산 허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세 사람은 각자 처한 시대적 상황은 달랐지만, 치열하게 현실과 부딪치며 범상치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다. 이들의 생애와 사상은 관찬사료나 문집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친우 사이에 주고받은 간찰을 통해 오히려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저는 외곶이라서 아무리 궁해도 구걸을 못합니다. 남이 주는 것도 받지 않고, 받더라도 어깨를 움츠리고 무릎으로 설설 가지 않습니다. 사례하더라도 감격해서 달려가는 법이 없고, 순결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제 자신 이것이 나쁜 습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본성으로 굳어져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편지는 1487년 양양부사 유자한(柳自漢)이 김시습에게 환속과 벼슬살이

를 권하자, 거절의 뜻을 밝힌 간찰의 일부이다. 김시습은 세간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명리의 세간을 벗어나 지팡이 하나, 짚신 한 쌍으로 무심한 구름과 사심 없는 달빛처럼 방랑하였다. 스스로 사용한 청한자(淸寒子)라는 호와 같이 겨울 달 아래 외롭게 피어난 매화의 이미지는 곧 청한한 그의 정신세계를 상징한다.

“갑자기 삼대(三代)의 정치를 거론하여 건의해서 받아들여 시행되지 않으면 곧 떠나버리는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오늘의 시국에 적절한 의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호원(浩原: 성혼成渾의 字)이 오로지 물러나기만 구하는 것은 너무 집착이 심하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억만 백성이 물이 새는 배에 타고 있으므로 그것을 구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벼슬을 버리고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1581년 율곡이 대사간의 직에 있으면서 송익필(宋翼弼)에게 보낸 것으로, 시대의 암울한 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율곡은 친구 성혼이 혼탁한 현실정치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태도를 취한 것을 옳지 않다고 보았다. 지금은 온 백성이 물 새는 배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위태로우니, 그런 때에 정치를 바로잡아 온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나와 그대 같은 지식인의 몫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대학자이면서도 현실정치를 결코 외면하지 않은 율곡의 모습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꽃에는 물결이 출렁이고 버들 빛은 한창 푸르며, 연꽃은 붉은 꽃잎이 반쯤 피었고 녹음은 푸른 일산에 은은히 비치는구려. 이즈음 마침 동동주를 빚어서 젓빛처럼 하얀 술이 동이에 넘실대니, 즉시 오셔서 맛보시기 바라오. 바람 잘 드는 마루를 벌써 쓸어놓고 기다리오.”

이 편지는 허균이 친우 권필(權驥)에게 내방을 권하며 쓴 것으로, 그 미려한 문장이 마치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하다. 허균은 실로 풍운아였다. 우리에게 그는 《홍길동전》의 저자이자 뛰어난 시인이었으며, 여류시인 난설헌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권필은 허균과는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으로 허균 못지않은 천재적 재능을 타고난 시인이었고, 필화사건으로 곤장을 맞고 귀양 가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도 허균의 비참한 죽음과 매우 닮았다.

E-mail에 익숙한 요즘의 세대에 손으로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은 진정한 사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물질의 쾌락을 숭상하고 권력 추구를 인간 본성이라고 합리화하며 체면치레의 만남[面交]과 이익 추구의 만남[市交]을 우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선 후기의 박지원은 <예덕선생전>에서 참된 사귀는 마음과 덕으로 벗을 사귀는데 있다고 하였다. 옛사람이 벗에게 적은 간찰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긴 절절한 우정과 마음으로 사귀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저항의 지식인 김시습

최호

어느 사회에나 바르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는 지식인이 있게 마련이다. 오백여 년 역사의 조선왕조에서 비판적인 지식인으로서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우선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 1435~1493)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살았던 15세기는 태종이 권력을 잡은 후 왕권이 강화되고, 세종, 문종, 단종으로 적장자에게 왕위가 계승되어 가면서 봉건적 왕조의 기반이 확립되어가는 시기였다. 그런데 세조가 이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지식인이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김시습이었다.

김시습은 서울 성균관 부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이름이 났다. 세 살 때 이미 유모가 맷돌에 보리를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지었다는 유명한 시가 있다.

비도 없이 천둥 소리 어디서 나나?

누런 구름 조각조각 사방에 흩어지네.

그가 신동이라는 소문이 당시의 국왕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져서 세종은 어린 김시습을 대궐로 불러들여 그의 재주를 보고 크게 칭찬하였으며, 뒷날을 기약할 정도였다. 그러던 그는 세조가 힘으로 왕위를 빼앗자, 격분하여 공부를 그만두고 머리를 깎고는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그 후 그는 현실의 불의와 타협에 줄곧 반발하면서 살았다. 과거를 보고 관리로 출세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선교 등 다양한 사상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끝내 어느 것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시와 소설로 울분을 달랬다.

그는 24세인 1458년(세조 4)에 관서지방을 유랑하며 지은 글을 모아 『탕유관서록(宕遊關西錄)』을 엮었는데, 그 후지(後識)에 방랑을 시작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질탕(跌宕)하여 명리(名利)를 즐겨하지 않고 생업을 돌보지 아니하여, 다만 청빈하게 뜻을 지키는 것이 포부였다.....하루는 홀연히 감개한 일(세조의 왕위찬탈)을 당하여 남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道)를 행할 수 있는데도 몸을 깨끗이 보전하여 윤강(倫綱)을 어지럽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도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 그 몸이라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관동지방을 유람하며 금강산·오대산 및 관동팔경을 돌아보고 지은 글을 모아 1460년에 『탕유관동록(宕遊關東錄)』을 엮었다. 이후는 주로 삼남지방을 유람하여, 1463년에 『탕유호남록(宕遊湖南錄)』을 엮었다. 이처럼 조선조에 사대부의 일원이었으면서도 체제에 대한 불만과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안주하지 못한 지식인을 방외인(方外人)이라 불렀다. 김시습은 방외인의 문학을 처음으로 연 인물이었다.

그는 서른한 살 되는 봄에 10년 동안의 방랑 생활을 끝내고, 경주 남쪽 금오산에 매월당을 짓고 자리 잡았다. 여기서 국문학사에 빛나는 『금오신화(金鰲新話)』라는 산문 소설을 창작하였던 것이다. 『금오신화』는 귀신, 염라왕, 용왕, 용궁, 염부주 같은 비현실적인 것들을 소재로 삼았으므로 전기문학(傳奇文學)이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김시습 자신의 모습과 생각을 비유적으로 담아 낸 자서전적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작품에서 어려운 시대에 타협과 굴복을 거부했던 한 지식인이 현실의 비리와 자신의 이상을 이런 종류의 글에나마 담아서 저항하고자 했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김시습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 선교 등 다양한 사상을 섭렵하여 유, 불 관계의 다채로운 논문들을 남긴 사상가이자, 현재 그의 시문집에 전하는 것만 하더라도 2,200여수나 되는 시를 남긴 시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시습과 같이 자유분방하게 다양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은 불교 자체를 엄격히 이단시하는 당시의 풍조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그는 퇴계 이황으로부터 ‘색은행괴(索隱行怪 : 궁벽한 것을 캐내고 괴상한 일을 행함)’하는 하나의 이인(異人)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김시습전」(『율곡전서』 권14~16, 잡저)을 지은 율곡은 그의 인물됨을 평가하기를, “재주가 그릇[器] 밖으로 넘쳐흘러서 스스로 수습할 수 없으리만큼 되었으니, 그가 받은 기운이 경청(輕淸)은 지나치고 후중(厚重)은 모자라게 마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불의에 저항하는 기상에 대하여, “절의(節義)를 세우고 윤기(倫紀)를 붙들어서 그의 뜻은

일월과 그 빛을 다투게 되고, 그의 기풍을 접하면 나약한 사람도 감흥하는 것을 보면 가히 백세의 스승되기에 남음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율곡은 김시습이 영특하고 예리한 자질로써 학문에 전념하여 공과 실천을 쌓았다면 그 업적이 한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애석해하였다.

김시습의 시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대체로 두 가지 방향으로 집약된다. 첫째는 힘들이지 않고서도 천성(天成)으로 시작(詩作)이 가능했다는 것과, 둘째는 그 생각이 높고 멀어 초매(超邁)·오묘한 데가 있다는 것이다. 그의 시 가운데 역대 시선집에 수록된 시만도 20여수에 이르고 있다.

## 신문고는 누구나 두드릴 수 있었을까

조선왕조는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민본(民本)’과 덕으로 다스린다는 ‘덕치(德治)’의 유교 이념을 내건 국가였다. 또한 언론제도가 발달하여 왕권의 전횡을 견제하고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탄핵하여 공정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신문고를 두드려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던 신문고의 설치도 덕치와 민본이 합해진 백성을 위한 정치적 배려에서 나온 산물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신문고는 마치 오늘날 민주적인 제도의 상징물과 같이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백성들은 정말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은 중앙 정부나 지방 수령, 그리고 지방의 토호들에 의해 경제적인 수탈과 피해를 자주 당하였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의 불법이나 부정은 대개 은폐되고, 법을 집행하는 관원들의 오판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부당하게 재산이나 처자를 빼앗기기도 하고, 양인이 천민으로 되기도 하였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힘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운명이거나 체념하고 이를 감수하거나 아예 자신의 억울함을 깨닫기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일부 의식이 있거나 용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왕을 비롯한 지배층도 안정된 지배의 유지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생활 안정과 민심 획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소원(訴冤)제도를 마련하였으니 신문고와 상언(上言)·격쟁(擊錘)의 제도가 그것이었다.

신문고는 조선 3대 왕인 태종 1년(1401) 7월에 중국 송나라 등문고(登聞鼓)를 본받아 설치되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등문고라 하였다가 곧 신문고라고 고쳤다. 신문고는 의금부 당직청에 있었고, 영사(令史) 1명과 나장(螺匠) 1명이 항상 지키고 있었다. 태종 4년의 다음과 같은 실록 기사는 신문고에 대한 조선 왕조의 의지를 잘 보여 준다.

“국가에서 백성의 의사가 왕에게 전달되지 못할까 염려하여 신문고를 설치하였다. 백성들에게 와서 치도록 허락하여 왕의 귀와 눈이 막히고 가려지는

근심을 없애니, 이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요, 아름다운 뜻이다.”

『태종실록』 권8, 태종 4년 갑신 9월 19일

신문고는 귀천을 가릴 것 없이 호소할 데가 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왕이 직접 해결해 준다고 표방하고 있다. 당시 글을 몰랐던 하층민이 말로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신문고가 정말 얼마만큼이나 백성을 위한 역할을 하였을까?

신문고는 전국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먼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신문고를 치기 위해서는 일단 서울까지 올라와야 하였다. 그렇다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쉽게 신문고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신문고를 치기 위해 지켜야 할 절차가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먼저 담당 관원에게 호소하여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헌부에 호소하게 하였다. 지방에서는 먼저 자기 고을의 수령에게, 그 다음 관찰사에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헌부에 호소하도록 하였다. 사헌부의 처리에도 만족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신문고를 치도록 하였다. 이 때 각 단계별로 전 단계의 관원에게서 그 사안을 처리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다음 단계에 호소할 수 있었다. 신문고를 칠 때에도 억울한 내용을 진술하여 담당 관리가 글을 작성하고, 신청자가 사는 곳을 확인한 뒤에 복을 두드리게 하였다. 따라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신문고를 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를 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지키던 영사가 먼저 의금부의 관리나 당직원에게 보고한 후에 사유를 확인해서 사안에 따라 신문고를 칠 수 있게 하였다. 신문고를 치면 의금부의 관원이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지시에 따라 해당 관청에서는 5일 안에 처리해야 하였다. 신문고를 친 사람의 억울함이 사실이면 이를 해결해 주었고, 거짓일 경우에는 엄한 벌을 내렸다. 또한 해당 관원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신문고를 치기 어려운 점은 까다로운 절차 때문만은 아니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있었다. 『경국대전』 형전에 따르면,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건과 불법 살인 사건을 빼고는, 중앙 관청의 하급 관리나 노비들이 그의 상관을 고발하는 경우와 지방의 양반, 향리, 민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는 오히려 벌을 받는다고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노비의 경우는 아예 복을 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힘없는 일반 백성들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신문고를 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더구나 수령이나 관찰사 또는 서울의 해당 관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가 신문고를 통해 왕에게 알려지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유형 · 무형의 압력과 회유를 통해서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천신만고 끝에 신문고 앞에 이르러서도 이를 지키는 의금부 관원들의 방해에 부딪치게 된다. 세종 때에는 양반 집의 노비가 신문고를 치려고 하였다가 담당 관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하게 광화문에 걸려 있던 종을 쳐서 문제된 적도 있었다. 더구나 중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두려움은 신문고에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왕에게 직접 호소하라고 만들어 놓은 신문고는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았다. 설령 신문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왕에게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거의 그대로 지속되었다.

따라서 신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사는 전현직 관리들이거나 양반 신분의 사람들이었다. 실제로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신문고를 이용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 양반을 비롯한 지배 신분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특권 지배층의 반발로 세조 때부터 폐지와 설치가 반복되었던 신문고는 결국 중종 때 아예 폐지되고 말았다.

신문고가 유명무실해지자 이제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은 상언과 격쟁만이 남게 되었다. 상언은 대부분 왕의 행차가 있을 때 그 앞에 나아가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고, 격쟁은 왕이 있는 곳 근처에서 시끄럽게 징을 울려 왕의 이목을 끈 다음 구두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상언은 신문고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여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 쉬운 제도였지만, 기본적으로 글을 알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격쟁도 별다른 제약은 없었지만 격쟁을 한 사람은 먼저 형조의 취조부터 감수해야 하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상언과 격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상언과 격쟁은 백성들의 병폐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하였던 조선 후기 영·정조 대에 더욱 활성화되었다. 한편 상언과 격쟁의 남발에 따른 폐단을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영조 47년(1771) 11월에 창덕궁 진선문(進善門)과 경희궁 건명문(建明門) 앞에 신문고를 다시 설치하였다. 이때의 신문고는 궁궐 안에 설치되었고 그 이용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어 길으로 내세워진 명분과는 달리 일반 백성들이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처럼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하려고 신문고를 치는 일은 어렵기 짝이

없었으나, 국가 변란을 고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직접 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양반들이 정치의 득실을 따지고, 민생의 안정을 주장하기 위해 신문고를 칠 경우도 일반 백성들의 경우보다는 수월하였다. 결국 두드리면 들어 준다던 신문고는 하층민의 억울함에 대한 호소나 해결을 위한 제도였다기보다는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왕의 권위와 신성감을 드러내고, 양반 지배층의 언로를 열어 지배체제를 안정화시키려는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왕조가 통치 이념으로 내건 ‘민본’과 ‘덕치’라는 것도 이처럼 왕권을 중심으로 한 민본과 덕치로서, 국민의 주권을 바탕으로 한 오늘날의 민주주의 이념과는 그 원리가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 율곡과 퇴계의 역사적 만남

최호

때는 1558년(명종 13) 봄. 당시 23살이던 율곡은 처갓집이 있는 경상도 성주에서 강릉의 외조모 댁으로 가는 도중에 안동에 들러 퇴계 이황을 찾아가 이틀 밤을 묵었다. 율곡을 만나던 해에 퇴계의 나이는 58세로 당대에 가장 명망 높은 원로 석학이었고, 율곡은 일찍부터 천재로 이름을 떨치던 청년이었다. 율곡을 만난 퇴계는 율곡의 영민한 재주와 학식에 깊이 감탄하고 무척 반겼던 모양이다. 율곡은 <쇄언(瑣言)>이라는 글을 통해 당시의 만남을 이렇게 밝혔다.

“퇴계선생은 병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예안현(禮安縣)의 산골짜기 사이에 터를 닦아 집을 짓고 장차 그곳에서 여생을 마칠 생각이었다. 무오년(1556년) 봄, 내가 성산(星山:성주)으로부터 임영(臨瀛)으로 가는 도중에 예안에 들러 퇴계선생을 찾아뵈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읊시 한수를 올렸다.

溪分洙泗派(계분수사파) 시냇물은 수사(洙泗:공자)에서 나뉘 갈래이고  
峯秀武夷山(봉수무이산) 봉우리는 무이산(武夷山:주자)처럼 빼어나네.  
活計經千卷(활계경천권) 살림살이라고는 천여 권의 경전뿐이고  
生涯屋數間(생애옥수간) 살아가는 방도는 두어 칸의 집뿐이네.  
襟懷開霽月(금회개제월) 뵈고 싶은 회포 푸니 가슴은 구름 속의 달 보듯 환하고

談笑止狂瀾(담소지광란) 웃음 띤 말씀은 거친 물결을 멈추게 하네.  
小子求聞道(소자구문도) 보잘 것 없는 저는 사람의 도리를 얻고자 하니  
非偷半日閒(비투반일한) 만나질 한가로움을 훔친다고 나무라지 마소.

퇴계선생은 이렇게 화답하였다.

病我牢關不見春(병아뢰관불견춘) 병든 나는 여기 갇혀 봄도 미처 보지 못 했는데

公來披豁醒心神(공래피활성심신) 그대가 찾아와 내 마음이 상쾌해졌네.

始知名下無處士(시지명하무처사) 이름난 선비에게는 헛된 명성 없음을 비로소 알겠고

堪愧年前闕敬身(감괴년전궐경신) 지난날 공경한 몸가짐 부족한 것이 못내 부끄럽구나.

嘉穀莫容稊熟美(가곡막용제숙미) 좋은 곡식은 잡풀의 무성함을 용납하지 않고

游塵不許鏡磨新(유진불허경마신) 떠다니는 먼지는 거울의 깨끗함을 허락하지 않네.

過情詩語須刪去(과정시어수산거) 기쁨에 겨워 과장한 시어는 지워버리고

努力功夫各日親(노력공부각일친) 노력하고 공부하여 나날이 배움의 뜻에 가까워지세.

나는 이틀 밤을 거기에서 묵고 작별 인사를 드렸다.”

『율곡전서』 권14, <쇄언(瑣言)>

율곡은 이 시에서 퇴계의 학문이 공자와 주자의 도통(道統)을 이어받았음을 말하고, 생활은 곤궁하지만 학문은 드높이 쌓였음을 칭송하면서 자신이 찾아온 것은 한가로이 놀러온 것이 아니라 ‘도’를 듣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퇴계도 율곡의 시에 화답하여, 율곡이 찾아와 담소하고 문답하면서 자신의 가슴도 상쾌해진다는 기쁨을 말하고 청년 율곡의 명성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형식적인 칭송하는 말은 버리고 공부에 매진하면서 각자 학문과 수양을 향상시켜 보자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을 하고 있다.

당시 퇴계는 풍기군수를 마지막으로 50세 때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있었다. 퇴계는 일찍부터 자신의 호에 사용한 ‘물러날 퇴(退)’의 의미처럼 평생토록 헛된 이름과 벼슬에 마음을 두지 않고 물러나 앉아 자신의 뜻을 기르고자 했다. 자신이 힘써야 할 평생의 과업은 벼슬의 길이 아닌 학문의 길을 좇아 사람다움의 진정한 도리를 찾고 실천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율곡이 볼 때 퇴계는 입신양명과 부귀영화를 멀리 한 채 평생 배움에 뜻을 두고 학문과 사람다움의 길을 좇아 스스로를 갈고 닦아온 존경할만한 선배였다.

처음 하룻밤을 묵을 예정으로 찾아왔으나 비 때문에 사흘을 묵게 된 율곡

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선배를 만났고, 퇴계 역시 젊음과 열정을 바탕으로 훌륭한 선비로 성장할 만한 후배를 만나는 기쁨을 맛보았다.

퇴계가 율곡을 한번 보고 너무 사랑하자 곁에 있던 제자들이 약간 시샘이 났던가 보다. 율곡이 떠난 뒤에 어떤 제자가 율곡이 퇴계에게 올렸던 시를 가리키며 “그 사람이 이 시보다 못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자 퇴계는 그 자리에서 “아니다. 그 시가 그 사람만 못하다.”라고 하여, 율곡의 재주와 인물에 대해 깊은 사랑과 기대를 보였다.

훗날 퇴계는 이날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 조목(趙穆)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다음과 같이 율곡에 대해 평하였다.

“일전에 한양 선비 이이(李珣)가 나를 찾아왔다네. 비가 오는 바람에 사흘을 머물다가 떠났는데, 그 사람됨이 밝고 쾌활하며, 본 것과 기억하는 것이 많아서 자못 우리 학문(성리학)에 뜻이 있었네. 그래서 옛 성현의 ‘후생가외(後生可畏)’라는 말씀이 진실로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네.”

이황, 『퇴계전서』 <조사경에게 보내다[與趙士敬]>

## 율곡과 선조

최호

오늘날 선조는 당쟁의 폐단과 임진왜란의 참화를 부른 암군(暗君 :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혹독한 비평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처음부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임금은 아니었다. 선조는 1552년(명종 7) 덕흥대원군과 하동부 대부인 정씨 슬하의 3남으로 태어났다. 초명은 균이었으나 개명하여 공으로 바뀌었고, 명종의 사랑을 받아 어린 나이에 하성군에 봉해졌다가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1567년 6월 16세의 나이로 조선 제 14대 국왕으로 등극하였다. 선조는 16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명종 비 인순왕후 심씨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선조의 정사처리와 업무에 재능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1년 후 즉 17세의 나이에 편전을 넘겨주었다.

즉위 초 선조는 오로지 학문에 정진하고 매일 경연에 나가 정치와 경사를 토론하고 제자백가서 대부분을 섭렵할 정도로 뛰어난 군왕의 자질을 보였다. 또한 성리학적 왕도정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계에서 훈구, 척신 세력을 모두 몰아내고 사림의 명사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이로써 민심은 안정되고 정계는 사림의 어진 선비들로 넘쳐나서 잠시나마 문치(文治 : 학문과 법령을 근간으로 하여 다스리는 정치)의 깃발 아래 조정은 평화를 되찾았다. 이 때문에 후대의 일부 학자들은 선조를 두고서 호학군주(好學君主 : 학문을 좋아하는 임금)라거나, 선조의 시대를 일컬어 목릉성세(穆陵盛世 : 목릉은 선조의 능호)라고까지 높게 평가했다.

율곡도 처음 선조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성군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고, “이제 임금이 성군의 뜻을 세우고, 조정과 재야의 훌륭한 선비들이 스승으로 나서 성군의 방향을 잡아준다면 조선은 세종대왕 이후 다시 한 번 나라와 백성이 모두 평안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선조 2년의 경연에서 율곡은 다음과 같이 ‘성군의 뜻’을 세워 ‘성군의 길’을 가도록 깨우쳤다.

“임금께서는 한 시대의 사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권세 있는 간신들이 나라와 백성을 억압

한 뒤라 선비의 풍습이 시들고 게을러져서 오로지 녹봉이나 받아먹고 체 몸이나 살찌우는 것만 알 뿐입니다.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이러하니 임금께서는 마땅히 ‘크게 일을 성취하겠다는 뜻’을 분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십시오. 그래야만 세상의 도리가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연일기(經筵日記)』 선조 2년(1569) 8월

그러나 율곡의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성균의 뜻을 세우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시간이 지나자 신하들의 간언을 뿌리치는 방법까지 나름대로 터득했다. 그 방법이란 말을 아주 드물게 하거나 신하들의 주청에 아예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알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도록, 언제나 대충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만 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율곡만큼 실용적인 개혁안을 많이 제시하고 임금에게 실천을 강하게 주장한 인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을 잘못 만난 탓인지 율곡의 불행은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듯 어떤 이야기도 귀담아듣지 않는 임금에게 평생을 두고 최선을 다해 간언해야 했다는 것이다. 선조는 계속되는 율곡의 간절한 간언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율곡이 향촌으로 물러나 처사(處士)의 삶을 사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다. 율곡의 거듭된 사양과 사직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끊임없이 벼슬을 내려 율곡을 자기 곁으로 불러들였다.

1582년 정월 이조판서에 임명된 율곡은 8월에는 형조판서에, 그리고 9월에는 다시 의정부 우참찬에 이어서 의정부 우찬성에 승진 임명되었다. 율곡은 세 번이나 그 자리를 사양했으나 선조가 끝내 허락하지 않자, 다시 한 번 기회를 빌어서 시대의 폐단을 개혁할 것을 주청한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다. 이 상소문에서 율곡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선조의 무사안일과 무성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전하께서는 지금 전복(顛覆 : 뒤집혀 엎어짐)당할 운세요, 위태로워 망할 상태에 빠져 있음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세상은 낡은 관습으로 인해 더럽혀지고, 공적은 뜻을 행하지 않아서 무너지고, 다스림은 헛된 의론으로 인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은 오래 묵은 폐단으로 말미암아 곤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전하께서 전복의 운세와 몹시 위태로워 망할 상태에 빠져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율곡전서』 <연보>

어느 때보다 지극하고 간곡한 심정을 담은 상소문을 접한 선조는 친히 율곡에게 술을 내리면서 “내가 분발하여 시행해보고 싶지만, 이 몸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재주와 식견이 미치지 못해 오늘날에 이르렀소. 다시 더욱 경계하고 반성해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 조정 일각에서 경장의 그릇됨을 지적하는 상소가 올라오자, 선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 논의를 덮어버렸다.

이처럼 선조는 훌륭한 스승을 얻어 옳은 길을 가는 방향은 잡았지만 한곳에 머무르며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선조는 결국 죽을 때까지도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의 말뿐인 선비주의로 인해 정국은 이른바 동인과 서인 간의 당파싸움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불안한 정국은 결국 임진왜란이라는 크나큰 역사적 상처로 이어졌다.



## 율곡과 우계의 도의지교(道義之交)

최호

율곡이 평생을 함께한 가장 절친한 벗은 우계 성혼(成渾)이었다. 율곡이 1536년생이고 성혼이 1535년이라 한 살 터울이었지만, 이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로 사귀었다. 율곡과 성혼이 이른바 도의지교를 맺은 것은 1554년 율곡의 나이 19세, 성혼의 나이 20세 때로 율곡이 금강산에 들어가기 직전이다. 두 사람의 도의지교가 지닌 남다른 역사적 의미 때문인지, 이들의 개인 문집 연보에는 당시의 상황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갑인 33년(1554) 선생 19세. 우계 성혼 선생과 더불어 친구로 사귀었다. 성혼 선생은 나이가 한 살 더 많았지만 처음에는 율곡 선생을 스승으로 섬기려고 했다. 그러나 율곡 선생이 굳이 사양하고 마침내 도의지교를 맺고 서로 옛 성현의 사업을 기대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분이 변하지 않았다.

『율곡전서』 <연보>

갑인 33년(1554) 명종 9년. 율곡 선생과 도의지교를 맺었다. 성혼 선생은 학문에 뜻을 둔 이후 마음을 진실하게 닦고 배움에 힘써서 규모가 엄격하고 정밀했다. 일찍이 율곡선생이 칭찬하기를 “만약 학문에 도달한 수준을 말한다면 내가 다소 낮지만, 마음의 지조 그리고 행실의 독실함과 확고함은 내가 우계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우계집』 <연보>

두 사람이 만난 때는 율곡이 삶의 방향을 잃고 어느 한 곳 의지할 데를 찾지 못한 채 정처 없이 헤매던 시기였다. 그 무렵 만나 도의지교를 맺고 마음을 나눌 정도였으니 성혼의 학문과 인품에 대한 율곡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성혼은 서울의 순화방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정암 조광조의 제자였던 그의 아버지 성수침(成守琛)은 기묘사화 이후 두문불출하다가 훈구파와 척신들이 장악한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경기도 파주에 은둔해 살았다. 성혼

이 10세 무렵 과주의 우계에 집터를 정해 거주한 성수침은 따로 스승을 두지 않고 직접 성훈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성훈은 15세 때 이미 경서와 사기에 통달했고, 행실 또한 의로워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율곡은 일찍부터 성훈의 아버지인 성수침을 마음속 깊이 존경했고, 율곡의 선영이 과주에 있었기 때문에 성훈에 대한 소문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다. 실제 성훈을 만난 율곡은 그의 학문과 삶에 대한 태도에 감동했고 평생토록 도리와 의로움으로 맺어진 우정을 쌓아 나갔다.

성훈은 약관의 나이에 병을 얻어 평생토록 병마와 싸우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다. 조선의 이름난 유학자들 중 퇴계 이황과 우계 성훈 두 사람보다 더 많은 병을 앓은 분이 없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그러나 성훈은 단 한시도 병을 핑계 삼아 정신을 놓거나 몸가짐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우계선생은 약관 시절에 병에 걸렸고, 뒤이어서 친상(親喪 : 부모의 초상)을 연달아 당했는데 너무 슬퍼한 나머지 몸이 심하게 상하여 마침내 고질병이 되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겨울옷으로 여름까지 지내면서도 끝내 병을 핑계로 삼아 자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삼가고 엄숙하게 지내어 마치 손님을 모시거나 제사를 받들 때처럼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낮에는 눕지 않았고, 마음이 나태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마다 용모를 정돈하고 수습하여 정신을 바로잡았다. 때로 기운이 쇠진해 지탱할 수 없으면 병풍에 기대고 앉아서 눈을 감고 숨을 고를 뿐이었다. 그러다가 잠시 후 기운이 다시 소생하면 곧 일어나 앉아 책을 보았다.”

『우계집』 <연보보유 덕행(年譜補遺 德行)>

율곡은 이러한 성훈의 근독하는 삶을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고치는 본보기로 삼고 늘 공경했다. 율곡은 그의 저서 『격몽요결』 <지신(持身)>장에서 “자기 몸을 이기는 공부는 날마다 행동하는 일을 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며 이런 자세가 공부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율곡과 우계의 도의지교와 근독하는 삶의 자세는 후대까지도 널리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특히 임진왜란 때 금산 전투에서 7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왜적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의병장 조현은 일찍이 선조에게 근독의 근본정신, 곧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적게 하며 행동과 실천을 깊고 두텁게 하는 것으로 세상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은 이지함과 더불어 성훈과 이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임금은 올바른 정치를 해야 임금이다

최호

연산군의 어지럽고 잘못된 정치로 인한 임금과 신하 간의 권력 관계의 과정은 직접적으로 무오·갑자사화를 겪으면서 신하들에게 성리학적 명분·의리에 따라 그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최우선의 중심 존재인 왕과 왕실이 명분과 예를 잃었을 때 임금을 교체해야만 하는 정치 상황이 신하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성학군주론(聖學君主論 : 군주로 하여금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 즉 성학을 익혀 성인군주가 될 것을 요구하는 논리)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 제기되었다. 수기치인(修己治人 : 자신을 수양한 후에 남을 교화해야 함을 이르는 말)으로 집약되는 주자성리학의 학문론, 정치 이념은 우선 사대부의 도리와 직분을 규정하는 논리면서, 사대부의 주체적인 정치 지향을 정당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치인’의 학문은 바로 성학이었고 이를 익혀야만 양반 사대부층의 반열에 설 수 있었다.

사람이 서서히 정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왕권 행사를 해 유교 정치를 구렁텅이에 넣었던 경험을 통해 사람은 ‘수기치인의 학문’을 군주학으로 넓혔다. 중종대의 조광조가 제시한 도학정치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였다.

성학군주론은 이언적(李彦迪 : 1492~1553)이 본격적으로 거론하였다. 이언적은 중종과 명종에게 올린 상소에서 정치의 성패는 오직 임금의 ‘한 마음[一心]’과 ‘마음의 기능[心術]’ 여하에 달린 문제로 보고 임금의 수신제가하는 방법으로 성학을 당면한 실천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6세기 중엽 이후 이황(李滉 : 1501~1570)과 이이(李珥 : 1536~1584)에 이르러 두 경향의 성학군주론이 일어났다. 이황은 주자학 자체를 성학으로 보고 「성학십도(聖學十圖)」를 당시 군주 선조에게 제시하였다.

“다만 옛 현인과 군자들이 성학을 밝히고 심법(心法)을 얻어서 도(圖)를 만들고 설(說)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도에 들어가는 문(文)과 덕(德)을 쌓는 기초를 가르친 것이, 오늘날 해와 별같이 밝았습니다. 이에 감히 이것을 가지

고 나아가 전하에게 진술하여, 옛 제왕들의 공송(工誦 : 악공이 시편을 외어서 임금에게 들려주는 것을 말한다.)과 기명(器銘 : 임금의 일용 기물에 명문을 새겨 임금을 깨우치고 경계하도록 하는 것)의 끼친 뜻을 대신하고자 하옵니다.....이에 삼가 종전에 있었던 것에서 더욱 뚜렷한 것만 골라 그림 7점을 얻고 그 중 「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는 정임은(程林隱 : 원대의 성리학자, 이름은 복심(復心)의 그림에다가 신이 만든 작은 그림 2점을 덧붙인 것입니다. 이밖에 그림 3점이 있는데, 비록 신이 만들었으나 그 글과 뜻이 조목과 규칙에서 한결같이 옛 현인이 만든 것을 풀이한 것이요, 신의 창작이 아닙니다. 이를 합하여 「성학십도」를 만들어서, 각 그림 아래에 외람되게 신의 의견을 덧붙여서 조심스럽게 꾸며 올립니다.”

『퇴계선생문집』 권7, 「진성학십도차도」

이황은 임금의 주관적 성취 과정에 따라 성학을 체득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이와 같이 군주를 적극적으로 교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실천을 소극적으로 권유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이이는 『성학집요(聖學輯要)』를 통해 『대학』 체계를 원용하여, 실제로 각각의 사안에 맞닥뜨렸을 때 수행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세세하게 명시하여 군주의 의지와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엿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큰 뜻을 세우셔서 반드시 성현을 표준으로 삼으시고, 삼대(三代)를 본받으십시오. 전심하여 글을 읽으시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시어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리에 맞는가를 생각하시고, 말이 내 뜻에 순하면 반드시 도리가 아닌가를 생각하시어 끝은 말을 즐겨 들으십시오. 간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어 착한 것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시고, 의리의 귀결을 깊이 살피시며, 몸을 굽히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고, 남에게 이기려는 사사로움을 버리시면, 일용하는 사이에 실천하는 것이 성실해져 한 가지도 실수가 없을 것이며, 한가한 가운데 마음이 짐이 돈독하여 한 가지 생각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도에서 게으르지 않으시고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으므로, 병통의 뿌리를 모두 버리시고 아름다운 자질을 온전히 하시어 제왕의 학문을 이룩하시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율곡전서』 권9, 「성학집요」 진차(進筭)

그러면서 이이는 어진 신하가 나서서 군주가 규범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교도하여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일종의 군주개조론에 해당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상징적·이념적 측면에서는 왕권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면서, 왕권 행사의 현실적 측면에서는 정당성 여부에 끊임없이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논리를 확보하였다.

조선 중기에 반정(反正)이라는 신료 주도의 왕위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왕권 위상이 변화하였으나 임금의 왕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연산군의 폭정과 광해군이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이는 과정을 겪으면서 군주는 성학 군주여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었다. 이는 이념적으로는 군주의 위상이 절대화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왕권이 제도화되는 단계로 나아가면서 군신공치(君臣共治 : 임금과 신하가 함께 통치하는 것)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임금과 신하 간의 권력 관계도 상대화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 260년간의 논쟁, 병호시비

최호

병호시비란 병산서원(屏山書院)과 호계서원(虎溪書院) 사이의 시비란 뜻이다. 병산서원은 안동에서 서남쪽으로 60여 리 되는 곳, 하회마을에서 낙동강을 따라 10리쯤 거슬러 올라간 곳에 위치한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을 모신 서원이다. 그리고 호계서원은 안동에서 북쪽으로 25리쯤 거슬러 올라간 월곡면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서원에서는 퇴계 이황을 주향(主享)으로, 서애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鶴峯 金誠一)을 종향(從享)으로 모시고 있다. 호계서원은 건립 당시에는 여강서원(廬江書院)이라고 했으나, 건립 후 약 100여 년이 지난 1676년(숙종 2)에 ‘호계서원’으로 사액(賜額 : 임금의 서원의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되어 호계서원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면 병호시비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시비의 발단은 1620년(광해군 12) 서애와 학봉을 호계서원에 종사(從祀 : 문묘나 서원 등에 학덕이 있는 사람의 신주를 모심)하게 되면서 두 유현 중 어느 쪽을 상위로 모시느냐 하는 문제로 일어났다. 학봉의 후손들은 학봉이 서애보다 네 살 위이니 장유유서로 보아서 학봉을 상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애의 후손들은 관위(官位)에서 서애는 영의정까지 지낸 것에 비해 학봉은 경상도관찰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서애를 상위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양측은 당시 영남학과의 최장로(最長老)로 존경을 받고 있던 정경세(鄭經世)에게 석차(席次)의 재정(裁定 :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함)을 청하였는데, 정경세는 이 재정에서 “두 선생의 연치(年齒 : 나이)의 차이는 견수(肩隨: 연장자와 함께 갈 때는 조금 뒤에 떨어져서 따라간다는 뜻)에 미치지 않고, 작위(爵位)의 차는 절석(絕席 :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함)에 있다”라고 하여 서애를 좌(상위)로 학봉을 우(하위)로 모시라고 판결하였다. 학봉의 후손들은 이 재정에 매우 불만스러웠으나 원로의 재정에 거역할 명분이 없으므로 일단 이에 승복하여 첫 번째 시비는 끝이 났다.

두 번째 시비가 벌어진 것은 그로부터 약 200년 후의 일이었다. 1805년(순조 5) 영남 유림에서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한강 정구, 여현 장현광의 4명을 문묘에 종사하기 위한 청원을 하게 되었다. 문묘종사의 청원을 위해 4명의 후손들이 회동하여 소장(訴狀)의 기초를 하는 단계에서 또 다시 서열의

문제가 일어났다. 학봉과는 종사할 때의 순서는 연령순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서애파는 여강서원에 모실 때 이미 위패의 서열은 정해져 있으므로 문묘에 종사할 때도 선례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 때 한강과 여헌의 후손들은 학봉과의 주장에 찬동하여 연령순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서애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독자적으로 상소하여 서열이 전도되었음을 논하고 그 부당성을 호소하였다. 양쪽의 소장을 접수한 조정에서는 4명의 문묘종사를 모두 기각해 버렸다.

이렇게 되자 한강과 여헌의 후손들은 자신들만으로 문묘종사를 계획하고 대구의 이강서원(伊江書院)에서 회동하여 독자적으로 상소할 것을 결정, 이를 도내의 유림에 통고하였다. 이 통문을 접수한 안동의 각 서원은 호계서원에서 회동하여 그 부당함을 규탄함과 동시에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한강과 여헌의 후손들을 규탄하는 통문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시 중단하기로 되어 있었던 시비가 다시 분출되고 말았다. 당시 통문을 작성한 사람은 학봉과의 유생인 유희문이었는데, 그는 통문의 서술을 학봉·서애·한강·여헌의 순으로 작성하였다. 이에 격분한 서애파의 유생 유형준이 통문을 찢어버리게 되자, 학봉과에서는 유형준에게 문벌(文罰 : 죄상을 나열하여 서원의 벽에 붙여두는 벌)을 가하였다. 이에 서애파는 호계서원에 대해 절연을 선언하고, 이후 서애를 모시는 병산서원에서만 모이게 되었고 서애→학봉의 서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모두 이에 따라 절연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학봉과 및 학봉→서애의 서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호계서원에 모이게 되어 병론(屏論), 호론(虎論) 또는 병유(屏儒), 호유(虎儒)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병유와 호유로 나누어진 양측은 이후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었는데, 그 중 큰 시비로는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1710~1781)의 호계서원합사(虎溪書院合祀) 문제였다. 이상정은 목은 이색의 후손으로 당시 영남지방에서는 퇴계학파의 적통을 계승한 사람으로 특히 학봉과로부터 존숭을 받아왔는데, 그를 호계서원에 합사시키자는 논의가 일어난 것이다. 즉 1812년에 호유측의 주도로 예안향교에서 도회가 열려 이상정의 합사가 의결되어 국왕의 추인을 얻기 위해 상소를 하자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병유측의 반대로 결국 호지부지되고 말았다. 4년 후인 1816년에 호유측은 또 다시 이를 주장했으나 역시 병유측의 강력한 반발로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병유측이 대산의 합사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묘내(廟內)가 좁아서 이 이상 신위를 모실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대산의 합사를 계기로 호유측이 서애와 학봉의 위패를 나이순으로 바꿔버릴지도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그런데 1816년 두 번째 대산추향(大山追享)의 논의가 있던 때에 병유측에

한 통의 투서가 날아들었는데 그에 의하면 호계서원 묘우 안의 위패 위치가 어느 사이에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병유측이 즉시 호계서원으로 달려가 묘내를 조사하였는데, 중당(中堂)에 있어야 할 위패가 북벽(北壁) 밑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격노한 병유들은 즉각 병산서원에서 회동하여 옮겨진 위패를 원위치로 돌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의하고, 이를 위한 도회를 연다고 도내의 유림에 통지하였다. 이에 대해 호유측에서는 ‘묘내의 위패는 원래 북벽에 안치되어 있던 것으로, 수백년간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유측이 움직였다고 우겨대는 것은, 대산의 추향을 방해하기 위한 트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병유가 소집한 날보다 하루 먼저 도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도내에 통지하였다.

도회가 열리던 날은 양측에서 동원 경쟁이 벌어졌으므로 천 명 가까운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양측의 대표가 묘내에 들어가 실지 검증을 하였지만, 한쪽은 옮겼다고 하고, 한쪽은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 논쟁으로 시종일관하였다.

그러자 병유측은 경상도 관찰사에게 고소하여 호유가 부당하게도 묘위(廟位)를 멋대로 이동한 것을 논하고, 서원을 관리하고 있는 하인을 잡아 족쳐서 범인을 찾아내어 엄벌에 처할 것, 그리고 위패를 원위치에 돌릴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관찰사 김경로(金敬魯)는 ‘묘위를 멋대로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즉각 원위치에 돌릴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간단히 판결을 내렸다. 병유측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즉시 위판(位版)을 원위치에 돌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놀란 호유측은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서원의 주위를 지키는 한편, 병유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논한 소장을 관찰사에게 제출하고, 관찰사가 직접 묘내를 검증하여 이동의 진위를 판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관찰사 김경로는 호유측의 소장을 보고서야 비로소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고, 심사숙고한 끝에 병유측에 내린 재정을 급거 취소하고 ‘사림간의 분쟁에 관(官)은 개입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번복하였다.

이로부터 도내의 유림은 두 편으로 갈려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었다. 이 지방에 전하는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느 한 곳에 유생들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물었다.

“귀공은 호유이오니까, 병유이오니까”

상대방이 대답해 가로되,

“소생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소. 중립이요”

그러자 처음 물었던 유생은, “홍, 상놈이었구먼”하고 비웃으며 총총히 떠나 버렸다는 것이다.



병호시비는 대원군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 1870년(고종 7)에 대원군은 안동부사 박재관에게 서한을 보내어, “영남유림에서는 안동이 그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남인끼리 병론이니, 호론이니 하고 싸우는 것은 좋지 않다.----하루속히 화합하여 성은에 보답토록 하라”고 하였고, 병·호 양쪽에도 같은 내용의 친서를 보내어 화합을 중용하였다. 안동부사 박재관은 대원군의 서한을 받아 즉각 쌍방의 유생을 호계서원으로 소집해서 화해를 도모하였다. 그들 역시 이 시비를 종결지어야 한다고는 했으나, 종전의 조건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 조건이란, ‘병유측은 위패를 원위치로 돌릴 것, 호유측은 현상을 유지할 것’이었다. 대원군의 대리인으로 중재에 나섰던 부사 박재관은 한결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이 작태에 망연자실, 그저 팔짱을 끼고 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격노한 대원군은 재차 박재관에게 서한을 보내어 쌍방의 유생 중에서 주동적인 인물을 잡아들여 엄벌에 처하고, 또 문제가 된 『대산실기(大山實記)』를 위시하여 관련 서류를 압수해서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 3월, 대원군은 드디어 화근의 원인이 된 호계서원 그 자체를 철거하도록 명하고, 8월에는 강제로 이를 철거해 버렸다. 이로써 약 260여 년을 끌어왔던 병호시비는 대원군의 서원철폐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되었다.

##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

최호

예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TV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조선의 국왕 선조(宣祖)의 모습은 한마디로 용렬하기 그지없다. 선조는 이순신이 왜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선정을 베풀어 민심을 크게 얻자 권좌를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없이 이순신을 경계하는 용렬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우리가 흔히 연산군과 함께 폭군으로 알고 있는 왕세자 광해군은 드라마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해군은 이순신을 의심하여 죽이려고까지 하는 아버지 선조에 맞서 끝까지 이순신을 감싸 보호하고, 왜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실제로 세자가 된 광해군은 의주까지 피난간 선조를 대신하여 국가 비상 대권을 맡아 관군을 동원하여 왜군을 무찌르려는가 하면, 의병을 독려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등 큰 활약을 하였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해군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그러면 광해군은 과연 무엇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폭군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을까?

조선시대에 정변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시호(諡號 : 임금이나 정승 등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칭송하여 주던 이름)가 없는 왕은 광해군 말고도 연산군과, 그에 앞서 숙부인 세조에게 내쫓긴 노산군이 있다. 그러나 노산군은 약 250년이 지난 숙종 때(1698년)에 그 억울함이 풀려 ‘단종(端宗)’으로 복위됨으로써 왕으로서의 자리를 되찾았다. 숙종 이전에는 노산군도 칭호에서 무언가 심히 잘못을 저지른 왕 또는 무도한 왕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또한 광해군을 폭정 사실이 두드러지는 연산군과 함께 폭군으로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연산군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광해군이 복위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광해군(光海君 : 1575~1641)은 선조의 둘째 아들로 이름은 혼(璿)이며, 어머니는 공빈김씨이다. 당시 왕비인 의인왕후 박씨에게서 소생이 없자, 후궁인 공빈김씨 소생의 제1왕자 임해군(臨海君)을 세자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임해군이 광패(狂悖 : 말이나 행동이 예절에 어긋나고 난폭함)하다고 하

여 보류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피난지 평양에서 서둘러 둘째 왕자인 광해군을 세자에 책봉하였다. 이것은 백성들도 바라는 바였다.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의 『서애문집』에 따르면, “선조가 피난을 가자, (서울)사람들이 여러 왕자의 궁은 모두 불태웠어도, 광해군의 궁만은 태우지 않은 점으로 인심의 돌아가는 바를 짐작할 수 있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세자로 책봉되기는 하였으나 적통이 아니었고, 친형 임해군도 있었다. 이 때문에 명나라에서는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선조 말에 새로 맞아들인 왕비 인목왕후 김씨에게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탄생하자, 광해군이 서자이며 둘째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창대군을 후사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소북(小北)과 그를 지지하는 대북(大北) 사이에 분쟁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1608년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오르고 이듬해 왕으로 책봉되었다.

그렇다면 왕이 된 광해군은 그 후 왜 쫓겨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 날인 인조 원년(1623) 3월에 인목대비가 내린 왕을 폐하는 교서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친형인 임해군과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인목대비를 유폐하여 인륜을 어겼다는 것이다. 둘째는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고, 특히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 준 명(明)의 은혜를 배반하였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죄목은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와 서인들의 주장이었다. 그 뒤 이러한 주장은 오랫동안 정당한 일로 여겨졌다.

광해군은 조선 15대 왕으로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왕이다. 따라서 즉위하기 전에 왕자의 칭호였던 ‘광해군’이 그대로 불려지고, 그가 다스린 시대를 기록한 실록도 『광해군일기』라고 이름 붙여졌다. 광해군에게 시호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만큼 국가와 민생에 큰 해를 끼친 폭군이었다는 판정인 셈이다. 이처럼 왕에게 어떤 칭호가 붙느냐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후세의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내린 사람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가진 양반들이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광해군이 왕위에서 쫓겨난 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그를 다시 평가하는 작업은 없었다. 왜냐 하면 인조반정 뒤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광해군을 쫓아내고 정권을 잡은 서인(西人) 쪽에서 거의 정국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인 쪽에서는 인조반정으로 얻어 낸 집권 명분을 자칫 흐릴 우려가 있는 광해군의 죄목을 새롭게 검토해 볼 까닭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인조반정의 명분으로 제시된 광해군의 두 가지 잘못 - 패륜 행위와 명에 대한 배신 행위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패륜 행위로 지적된

바와 같이, 광해군이 친형과 이복 동생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궁궐에 가둔 행동은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이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광해군은 영창대군이 태어난 뒤, 적자가 아니라는 약점 때문에 세자에서 쫓겨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영의정 유영경은 선조에게 광해군의 책봉을 취소하라고 건의하기도 하였고, 위독한 선조가 광해군에게 선위(禪位 : 왕이 살아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하는 교서를 내린 것을 감추었다가 발각되어 나중에 사사(賜死)되었다. 따라서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세자의 지위에서 쫓겨나게 되면 죽음을 당할 지도 모르는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죽인 일을 잘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역대 왕들 가운데 태종이 아우인 방석, 방번 등을,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심지어 영조는 그 아들 사도세자를 죽이고도 패륜적인 ‘군’으로 강등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의 반인륜, 패륜적 행위는 죽은 뒤에도 정치 세력이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바로 이 점이 광해군과 달랐을 뿐이다.

다음은 명을 배신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자. 당시 국제 정세는 새로이 떠오르는 후금(後金)이 명을 제압하는 형세였다. 그런데 명이 후금과 전쟁을 벌이려고 조선에 병사를 요청해 왔다. 전통적인 관계로 보나 임진왜란 때 원병을 보내준 의리로 보나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곧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 후금(후에 청나라)을 무시하고, 무작정 지원군을 보내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광해군은 강홍립(姜弘立) 장군에게 명나라 군대를 원조하면서 형세를 보아 적당히 후금에게 항복하되,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보냈음을 해명하라고 특명을 내렸다.

그 결과, 명과 후금 두 나라에 불만을 사지 않고 아무런 마찰 없이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으니, 참으로 적절한 실리 외교였다. 그런데도 광해군을 쫓아낸 서인들은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내세운 것을 큰 죄목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하여 새로 왕위에 오른 인조와 서인 정권은 중립 노선을 폐기하고 쓰러져 가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고집하다가, 결국 청에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당하여 국가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다.

광해군은 미묘한 국제 관계 속에서 자주적이고 중립적인 실리 외교를 퍼대외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다. 특히 그의 뛰어난 외교 정책은 그를 쫓아낸 서인들의 잘못된 외교로 침략을 당했던 점을 떠올릴 때, 더욱 빛나지 않을 수 없다. 인조를 비롯한 서인 세력들이 정권 탈취를 합리화하려고 광해군을 ‘왕’이 아닌 ‘군’으로 깎아 내렸으며, 뒷날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과 명분에 의하여 패륜적인 혼군(昏君)으로 규정하였지만, 실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반정에 의하여 희생

된 연산군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 조선시대 왕의 일상은 어땠을까

최호

조선시대의 왕은 참으로 바쁜 사람이었다. 흔히 왕이 처리하는 군국기무는 만 가지나 되기 때문에 왕의 집무를 일컬어 ‘만기(萬機)’라 부른다. 왕의 기상시간은 늦어도 해가 뜨기 이전이라야 하였다. 조선시대의 한양에는 밤 10시쯤에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인 인경을 28번 쳐서 인정(人定)을 알리고, 새벽 4시경에 통행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33번의 파루(罷漏)를 쳤다. 밤사이 침전에서 잠들었던 왕도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파루에 일어나야 했다.

왕은 일상적으로 침전의 동쪽 온돌방에서 밤을 지냈는데,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의 강녕전,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의 대조전이 대표적인 침전이였다. 침전 주변에는 왕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람과 시설들이 있었다. 왕의 침실 밖에서는 지밀상궁(至密尙宮)들이 침실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방에서 숙직을 서고, 식사와 세숫물, 옷 등을 담당하는 대전차비(大殿差備)들은 침전 근처에서 상시 근무하였다. 왕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지밀상궁들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식사를 담당한 수라간의 요리사들은 음식을 만들고, 세숫물을 대령하는 시녀들은 물을 준비했다. 내시들도 일어나 왕의 명령을 기다렸다.

왕의 하루 일과는 먼저 대비와 왕대비 등 웃어른에 대한 문안인사로 시작되었다. 바빠서 직접 인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내시를 보냈다. 해가 뜬 무렵인 평명(平明)에는 학문 토론 겸 정치 토론을 위해 경연(經筵)에 참석한다. 경연이란 신료들과 더불어 경전을 토론하는 자리라는 의미이다. 경연은 세자 때의 수업과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학문 토론을 하는 중에 종종 현안문제들이 논쟁점으로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부각되고, 보통은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이 제시된다.

경연이 끝나면 아침식사를 하고 조회를 시작하는데, 왕의 공식집무는 여기서부터다. 조회에는 백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조회와 매일매일 시행하는 약식 조회가 있다. 정식조회는 조참(朝參)이라 하며, 매월 5일, 11일, 21일, 25일 네 차례에 걸쳐 대궐의 정전에서 백관들이 왕을 알현하는 의식이다. 약

식조회는 상참(常參)이라 하고, 대신 · 중신 · 중요 아문의 당상관 · 정연관 · 승지 · 사관 등이 왕을 알현하는 매일 매일의 의식이다.

아침조회인 상참이 끝나면 이어서 승지를 비롯하여 공무가 있는 신료들로부터 국정 현안을 보고받는다. 이는 아침에 업무를 보고한다고 해서 조계(朝啓)라 하는데, 이때에는 반드시 사관이 동석한다. 승지는 왕의 비서로서 중앙과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공문서와 상소문, 탄원서 등을 접수해 미리 검토하였고, 보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소문이나 탄원서는 되돌리기도 하였다. 승지들은 꼭 필요한 현안을 골라 왕에게 보고했는데, 내용이 긴 공문서는 왕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하였고, 일상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침까지 보고서 말미에 첨부하였다. 따라서 왕은 보통의 사안은 승지가 제시한 대로 따랐으며, 왕의 결재 문구는 “그대로 하라”는 의미의 율(允), 의윤(依允), 지도(知道) 등 한두 자에 불과했다.

또한 승지는 왕이 중앙 부처나 지방 행정 조직에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 다시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는 왕에게 올라가는 모든 보고가 승정원을 경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이 내리는 모든 명령 역시 승정원을 통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승지의 역할이 이처럼 막중하기에 문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인재들만이 승지에 임명되었다.

업무보고를 받고 나면 이어서 윤대관(輪對官)들을 만나야 한다. 윤대관이란 상참이나 조계에 참석하지 못하는 각각의 행정부서에서 순번에 따라 1명씩 왕에게 파견한 관료들이다. 이들은 조계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왕을 알현하고 자신들의 부서와 관련된 업무를 보고한다. 윤대관은 하루에 5명 이하로 제한했고, 문신은 6품 이상, 무신은 4품 이상이 될 수 있었다.

아침조회부터 시작해서 윤대관들까지 만나고 나면 벌써 정오가 가까워온다. 정오가 되기 전에 점심을 간단히 하고, 정오가 되면 바로 주장(晝講)에 참여해서 학문을 익혀야 한다. 주장 이후에는 지방관으로 발령받고 떠나는 신료나 지방에서 중앙으로 승진해오는 관료들을 만나야 한다. 특히 팔도의 관찰사나 중요지역의 수령들은 왕이 친히 만나 업무를 당부하고, 그 지역의 민원을 들어준다. 이렇게 몇 명의 신료들을 만나고 나면 벌써 해질 때가 가까워온다.

한편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왕 자신이 반드시 챙겨야 할 업무가 있다. 바로 야간에 대궐의 호위를 맡을 군사들 및 장교들과 숙직관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야간의 암호를 정해주는 일이다. 이는 왕 자신의 안전 및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것으로 하루 집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왕은 해지기 전에 다시 저녁 공

부인 석강(夕講)에 참석해야 한다. 석강이 끝나면 저녁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저녁 후에도 낮 동안의 업무가 밀려 있으면 야간집무를 본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대비와 왕대비 등에게 문안인사를 드려야 한다. 이제야 겨우 공식적인 하루의 일과가 끝난 것이다.

이외에도 왕이 참석해야 하는 무수한 공식행사나 국가제례 등이 있으며, 대소신료들과 전국의 양반 그리고 일반 농민이나 노비들이 올리는 상소문과 탄원서도 적지 않다. 공문서 처리는 비교적 간단했으나, 상소문이나 탄원서의 처리는 쉽지 않았다. 비중 있는 인사가 올린 상소문은 왕이 직접 읽어야 했는데, 상소문은 격식을 차리고 글 솜씨를 뽐내느라 아주 길뿐만 아니라 난해했다. 왕은 긴 상소문을 다 읽고 직접 대답을 써주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상소문은 하루에 열 통만 올라와도 다 읽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왕이 상소문에 대한 비답(批答 : 상소에 대해 왕이 내린 답변)을 내려 주는 일은 통상적으로 오래 걸렸다. 특히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소문은 아예 무시하거나 심지어 상소문을 올린 사람에게 중벌을 내려 필화(筆禍)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처럼 업무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왕이 자기 자신만의 호젓한 시간을 갖기란 쉽지 않다. 조용히 명상에 잠기거나 보고 싶은 책이라도 뒤적이려면 한밤중에나 가능하다. 과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왕이 한밤중에 조용히 독서하거나 상소문을 읽는 것을 을람(乙覽)이라 했다. 이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인 을야(乙夜)에 책을 열람한다는 의미인데, 밤늦도록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 외에도 실제로 이 시간이 되어야 틈을 낼 수 있었다.

왕이 챙겨야 하는 업무는 만기라 불리듯이 산처럼 많다. 그러므로 왕에게 병이라도 생기거나 또는 왕이 업무에 싫증을 내고 정사를 돌보지 않으면 결재해야 할 문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적체되는 문서 하나하나가 왕에게는 지겨운 업무일 수도 있지만, 이 문서가 결재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나라와 백성을 생각한다면 왕은 잠시도 한눈을 팔 여유가 없으며, 병들어서도 안 된다. 훌륭한 왕이 되려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업무능력과 육체적 건강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왕이 공식적으로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우선 3정승을 비롯하여 정1품 이상의 관료가 사망하면 3일간 조정의 업무를 정지했다. 정경(正卿) 이상의 관료가 죽었을 경우에는 2일간, 판윤(判尹)을 지낸 사람이 사망하면 1일간 조정업무를 쉬었다. 공식적으로는 고위관료의 죽음에 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쨌든 격무에 시달리는 왕에게는 귀중한 휴식 시간이었다. 이외에 세시풍속상의 명절에도 휴무였다.



## 조선시대 예비국왕, 세자로 사는 법

최호

조선시대 적장자로서 세자에 책봉되는 나이는 대략 8세 전후였다.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었지만, 세자에 책봉되면 바로 관례(冠禮)를 행하고 배우자를 골라 혼례를 치르는 것이 관행이었다. 조선시대 유교예법서인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하면 관례는 15~20세 사이에, 혼례는 16~30세 사이에 치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남자의 혼인연령을 15세로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세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지킨 경우가 별로 없었다. 대부분은 원자책봉 후에 곧바로 관례를 행했다. 이는 원자로 책봉된다는 사실 자체가 성인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관례는 어른의 표시로 모자인 관(冠)과 성인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자(字)를 지어 주는 의식이다. 본래 관례는 자신의 집에서 치르는 것이지만, 세자의 관례는 나이 많은 종친의 집을 빌려 거행하였다. 대궐 정전에서 관례를 치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례의 의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주인(主人)은 보통 관례를 행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상례이나 원자의 아버지는 왕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종친 중에서 선발하였다. 관례가 끝나면 이어서 왕에게 인사하고 종묘에 고했다.

조선시대 왕의 혼례는 대체로 세자 시기일 때에 치렀다. 연령은 대체로 10세 안팎이었다. 예컨대 현종·숙종·영조·정조·헌종 등은 11살에 혼례를 치렀고, 경종은 9살에 혼례를 치렀다. 이는 법보다 상당히 이른 조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자빈은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므로 왕비의 간택처럼 삼간택을 하였고, 선발된 후에는 세자와 마찬가지로 임명장을 받았다. 또한 세자는 세자빈 이외에 공식적으로 후궁을 둘 수 있었다. 세자, 세자빈, 후궁은 동궁(東宮)이라는 궐내의 독립 구역에 거주하였다. 세자는 마치 떠오르기 전의 태양과 같은 존재이므로 궁궐 동쪽에 거주하고 그 명칭도 동궁이라고 하였다.

세자는 엄밀히 말하면 예비왕일 뿐이었다. 따라서 세자로 있을 때에는 철저하게 자신의 주제를 지켜야만 하였다. 세자가 정치에 간여하거나 인사에 개입하게 되면 바로 삼사(三司 : 사헌부·사간원·홍문관) 관료들의 탄핵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정작 큰 문제는 아버지인 국왕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세자는 아들이 아니라 정적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세자가 정치에 간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세자로서 공식적으로 정치에 간여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대리청정이 그것이다. 보통 왕이 중병에 들어 정사를 살필 수 없거나, 노년에 격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또는 국난을 당하여 세자에게 위임통치를 시킬 때이다. 세종의 경우, 말년에 격무를 덜기 위해 세자(후의 문종)에게 약 5년간 대리청정을 시켰다. 임진왜란 때의 광해군, 영조 때의 사도세자, 순조 때의 효명세자도 국난 또는 부왕의 중병으로 대리청정을 하였다.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왕권에 위협을 느낀 국왕이 마지못해 대리청정을 명하는 경우다. 계속해서 흉년이 들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자가 대리청정을 하는 수가 있다. 더 심하면 국왕이 아예 전위하겠다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때 세자의 입장에서 대리청정은 몹시 위협하다. 대리청정을 잘하더라도 모든 영광은 주상에게 돌아가지만 반대로 조금의 허물이나 실정이 있으면 세자의 책임이 된다. 문종을 제외하면 대리청정을 했던 세자의 처지는 매우 불행하였던 사실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광해군은 위임통치를 계기로 부왕 선조와 극단적인 불화를 겪었으며, 효명세자는 약 3년간의 대리청정을 통해 외척 안동김씨를 막다가 의문사를 당하였다. 그러나 누구보다 비극적인 사람은 부왕에게 죽음을 당한 사도세자였다. 사도세자는 14년간 부왕을 대신하여 국정을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도세자와 영조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결과는 조선 왕실의 최대 비극이라 할 수 있는 뒤주 사건으로 막을 내렸다.

이와 달리 노년의 왕을 대신하거나 병중의 왕을 돕기 위해 대리청정을 할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세자의 입장에서는 미리 정치를 경험하는 셈이 된다. 또한 국왕도 자신의 왕권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굳이 세자의 허물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군주제도의 허점이 훌륭하게 보완되는 순간이 바로 이때라고 하겠다.

세자는 대리청정 기간 중에 국왕을 대신하여 왕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세자가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우선 세자는 자신이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은 일일이 왕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료들도 후일 국왕이 친정할 날을 고려하여 세자와 왕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처신한다. 왕이 받쳐주지 않으면 대리청정을 한다 해도 세자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비상사태가 해결되면 대리청정은 취소되고 세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아침저녁으로 문안인사하고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예전의 생활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세자는 자신의 시대를 기다려야 한다.

## 서학에 대항하는 동쪽의 학문, 동학

최호

율곡선생은 조선사회를 적극적으로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을 맞이한 뒤, 조선 사회개혁의 기회가 있었으나 당시 사회지도층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사회는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어 호시탐탐 한반도를 노리고 있던 일본의 침략으로 결국 국운이 기울게 되었다. 이때 유교의 영향을 받은 동학세력이 등장하여 조선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였는데, 그 창시자 최제우에 대해서 살펴본다.

문 : 너의 이름은 무엇인가?

답 : 전봉준이다.

문 : 나이는 몇 살인가?

답 : 마흔한 살이다.

문 :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답 : 태인 산외면 동곡리이다.

문 :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답 : 글방 선생을 하고 있다.

.....

문 : 너는 고부 군수에게서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왜 군사를 일으켰는가?

답 : 세상이 날로 잘못되고 있어 세상을 한번 건져 보고자 하였다.

문 : 너와 함께 일을 꾸민 손화중, 최경선 등은 모두 동학을 대단히 좋아했는가?

답 : 그렇다.

문 : 소위 동학이라는 것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

답 : 마음을 지켜 충효로 본을 삼고 보국안민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 : 네가 군대를 일으킬 때 거느린 사람 모두가 동학 교도인가?

답 : 접주는 다 동학이나 그 나머지는 충의를 위해 일어선 보통 사람들이다.

<전봉준공초(全琫準供招: 전봉준에 대한 심문 기록) 중>

동학은 1860년(철종 11) 최제우가 창시한 종교 사상이다. 당시 유교는 성리학 명분주의에 빠져 변화하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불교 역시 조선시대 5백여 년간 정책적으로 탄압받아 왔으므로 새로운 사회를 주도할 자체 역량이 부족했다. 또한 서양의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 사회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서학의 침투에 대항하는 한편, 새로운 이상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여 등장한 것이 동학이었다. 동학은 사후 세계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현실 생활의 안정과 평화, 행복을 기원한다. 곧 현세 복리를 추구하는 현실 중시의 사상을 지니고 있어 당시에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여 생활에 위협을 크게 받던 농민들에게 급속히 전파되었다.

“최제우는 경주 백성으로 훈장을 업으로 삼았는데 양학(洋學 : 서양의 학문)이 밀려들어온다는 것을 듣고서 양반 유생으로서 양학이 크게 번지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하늘을 공경하고 따르는 마음으로써 ‘위천주고아정 영세불망만사의(爲天主顧我情 永世不忘萬事宜:천주를 위해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시고 만사 영원토록 잊지 않음이 마땅하다)’란 13자 주문을 짓고, 이름하여 동학이라고 하였음은 동국의 뜻을 딴 것인데 양학은 음이고 동학은 양이라 하여 양으로써 음을 제압하려고 한 것이다.”

『일성록(日省錄)』 고종 1년 2월 29일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는 아명이 복술이요, 관명(冠名 : 관례를 치르고 어른이 되고 나서 새로 지은 이름)이 제우(濟愚)이다. 자는 성묵(性默), 호는 수운(水雲), 본관은 경주이다. 아버지는 옥(鎔)이며, 어머니는 청주 한씨이다. 7대조 진립(震立)은 임진왜란·병자호란 때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하여 사후에 병조판서의 벼슬과 정무공(貞武公)의 시호를 받았으나 6대조부터는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몰락 양반 가문 출신이었다. 아버지는 여러 차례 과거에 실패한 유생으로 두 번 상처를 하고 과부이던 한씨를 만나 63세에 최제우를 낳았다.

최제우는 6세 때 어머니를 여의고 8살 때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공부했는데 수많은 책을 읽어 모르는 것이 없었으며, 10세 때에는 이미 세상의 어지러움을 한탄할 정도로 총명했다고 한다. 13세 때에 울산 출신의 박씨와 혼인했고 17세에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농사에는 마음이 없었으며 화재까지 당하여 집안의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3년상을 마친 뒤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면서 활쏘기·말타기 등을 익히고, 갖가지 장사와 의술·복술(卜術 : 점을 치는

술법) 등에도 관심을 보였으며, 서당에서 글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세상이 어지럽고 인심이 각박하게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천명을 돌보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고 한울님의 뜻을 알아내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당시 사회는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당쟁과 외척의 세도로 정치는 어지럽고 부패하였으며 양반 토호들의 횡포, 지방 관리들의 포학 등이 극에 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양 이양선의 출현과 서학의 전래는 왕조 질서의 동요를 가져왔다. 이때 최제우는 ‘보국안민(輔國安民: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하게 한다)’과 ‘제폭구민(除暴救民: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구함)’에 뜻을 두고 서학·서교에 대응하는 동학이라는 새로운 도를 창시하였다.

동학은 짧은 기간에 교세를 확장하였다. 경상도는 물론이고 그 밖의 지역으로 널리 퍼졌으며 산골 어린아이들도 동학의 주문을 외울 정도였다. 최제우 자신도 1863년 11월에 전라도 포교를 위해 경상도를 벗어나 전라도 남원에 가서 신도를 확보하였다.

정부와 양반 지배층은 동학의 급속한 확산을 우려하였다. 동학이 기존의 성리학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단 사상으로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상감영에 체포 명령을 내려 1863년(철종 14) 12월 3일 대주인(大主人) 최제우를 체포하였다. 이듬해 3월 10일에 ‘평세사란 암지취당(平世思亂 暗地聚黨:평탄한 세상에 난을 생각하여 몰래 당을 모았다)’이라는 이유로 최제우를 참형에 처한 동시에 동학 교도를 색출하여 체포하였다.

당시 북도 중주인(北道中主人: 경주 이북을 포교하는 접주)으로 포교하던 최시형은 최제우가 체포되기 직전인 1863년 8월 14일에 대주인이 된 뒤, 관의 체포를 피해 강원도 등지로 도피하는 한편 교세 확장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전부터 내려오던 접주 제도를 확대 개편하여 교인들의 일단(一團)을 ‘포(包)’라 하고 여기에 포주(包主)를 두었다. 이제 동학은 충청·전라도 등에 까지 널리 유행하였으며, 그 조직은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전개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 조선시대 사설 초등교육기관, 서당

최호

서당은 조선시대에 전국 여러 곳에 널리 퍼져 있던 사설 초등 교육기관으로 글방·서재·사숙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서당의 기원으로는 고구려의 경당이 거론되며, 고려 시대에도 송나라 사람 서공이 쓴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초등 교육기관으로 서당의 존재가 보인다.

조선조는 국초부터 인재의 양성과 교화를 위한 제도로 학교를 중시하였다. 이에 서울에 성균관과 사학(四學)을, 지방에 향교 등의 교육 기관을 설치하였으며, 세종조에 그 체제를 완비하였다. 그러나 왕조 체제의 틀이 잡히자 국가 정책은 차츰 경비가 많이 드는 관학의 육성보다 손쉬운 과거를 통한 인재 선발로 돌아섰다. 이에 각 지방의 향교는 국가의 관심 부족으로 능력 있는 훈도를 구할 수도 없었고, 교생들도 군역을 모면하려는 평민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당시 많은 유생들은 이러한 향교를 떠나 사저에서 면학하거나, 서원·서당, 양사재 등 사학기관을 설립하여 교육에 임하였다.

우리가 조선시대 서당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림은 김홍도의 <서당>이다. 가운데 훈장을 중심으로 글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남자아이들밖에 없다. 조선시대는 여성에게 문필 교양이 가로막힌 시대였다. 김홍도의 <서당> 그림에는 발목을 만지며 울고 있는 아이와 어쩔 줄 몰라 하는 훈장의 모습, 이런 모습에 킥킥 웃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우는 아이는 필경 잘못하여 회초리를 맞았을 터이다. 또 여기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다양하다. 어떤 이는 갓을 썼고 어떤 이는 덩치도 작고 땀기머리를 하고 있다. 이것을 보면 조선시대 서당에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공부했음을 할 수 있다. 가장 덩치가 작은 학동은 옷차림이 남들과 다르다. 나이가 매우 어릴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시대에 보통 글공부를 몇 살부터 시작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일곱에서 여덟 살에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서당의 하루 일과를 보면 학습 부담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새벽에는 훈장에게 전날 배운 것을 확인받은 강(講)을 하여 통과하면 그날의 진도를 나간다. 오전 중에는 당일 배운 내용을 암송하면서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오후가 되면 배운 내용을 계속 암송하거나 훈장과 함께 산책을

나간다. 저녁에는 배운 내용을 암송하면서 학동들과 함께 당일 배운 내용에 대해 문답하거나 다음 날 공부를 연습한다.

교육 내용은 읽고 암기하는 강독과 글을 짓는 제술, 그리고 글쓰기를 연습하는 습자로 이루어진다. 강독 교본으로는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사략』, 『소학』, 『사기』, 사서, 삼경, 『당송문(唐宋文)』, 『당율(唐律)』 등이었다. 이 중 『소학』은 아동의 지혜와 덕성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교재였다.

글을 짓는 제술로는 오·칠언절구, 사율, 고풍, 십팔구시의 작품이 보통이었다. 훈장의 자질에 따라 각종 문장체를 학습하기도 했지만 작은 서당 가운데는 제술을 아예 제외한 곳도 있었다. 습자는 정서(正書) 또는 진서(眞書)라 할 수 있는 해서(楷書)와 자획을 생략하여 신속히 쓰는 흘림글씨인 초서(草書)가 주 내용이었다.

서당의 교육법은 생도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교육하는 개별지도였다. 많은 양을 가르치지 않았고, 아둔한 아이일수록 끈기를 가지고 가르쳤다. 서당에서는 계절에 따라 교과를 다르게 운영했는데, 봄과 가을, 겨울에는 경서류를, 여름에는 시를 짓는 문예 수업을 위주로 했다.

조선시대에는 물론 글공부의 중요성이 컸지만, 개인에 따라 몸을 단련하는 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던 중봉(重峯) 조헌(趙憲:1544~1592)은 새끼줄로 줄넘기를 하는 방법을 만들어 아이들의 다리 힘을 키웠다고 하는데, 자신을 찾아오는 선비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전에 항상 줄넘기를 삼천 번씩 시켜서 둔한 선비들이 줄넘기를 하느라 몸놀림이 빨라졌다는 구전도 전한다.

서당에는 훈장과 학동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서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으면 서당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접장(接長)이라는 사람을 두었다. 접장은 공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접’은 떼나 무리를 뜻하니, 말하자면 접장은 무리의 우두머리이다. 규모가 큰 서당에서는 훈장을 돕기 위해 학동 가운데 나이와 지식이 많은 자를 두세 명 뽑아 접장으로 세웠다. 이를테면 지금의 학급 반장과 같은 역할이다. 서당에서 접장이 되려면 학동들 중 나이가 많아야 할 뿐 아니라 학업도 일정 수준에 올라 있어야 했다. 접장은 훈장 대신 나이 어린 학동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학동이 책 한 권을 다 익히고 나면 서당에서 스승과 친구들에게 간단한 잔치를 베풀었다. 이를 책거리라고 하였는데, 다른 말로 책씻이[冊施時]라고도 하였다. 책을 한 권 떼면 아이의 집에서는 훈장에게는 약주와 음식을 대접하고, 학동들에게는 떡을 해서 먹였다. 주로 국수·경단·송편 등을 장만했다.



이 중에서 송편을 음식으로 하는 이유는, 송편이 비어 있는 속에다 팥이나 콩·깨 등을 넣어 만들듯 학동도 속을 꼭 채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책거리 외에 서당에서 벌어졌던 행사로는 개접례(開接禮)·과접례(罷接禮) 등이 있었다. 개접례는 개학식과 비슷한 행사였다. 과접례는 서당이 일정한 기간의 학습을 끝내고 하는 행사였다. 개접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적당한 날을 선택하며, 과접은 음력 7월이 지나 날씨가 서늘해지면 했다.

## ‘스승을 따를 것인가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 회니시비

최호

이른바 회니시비(懷尼是非)는 숙종 때 사제 관계에 있었던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윤증(尹拯: 1629~1714)의 불화 때문에 그들의 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분쟁으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게 한 사건이다. 회니시비란 용어는 송시열이 현재의 대전 시내 동쪽에 있는 회덕현(懷德縣)에 살았고, 윤증이 현재의 논산군 노성면에 해당하는 니성현(尼城縣)에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회니시비의 시원은 1653년(효종 4) 황산서원에서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와 송시열이 윤희(尹鑄: 1617~1680)의 학문적 태도를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인 데서 찾을 수 있다. 윤희는 여러 경서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시도했다. 송시열은 이러한 윤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특히 1652년(효종 3)에 윤희가 『중용』에 대해 새로운 장을 나누고 집주(集註: 여러 사람의 주석을 한데 모음)를 달자 그를 ‘사문난적(斯文亂賊: 유교 교리를 어지럽히고 그 사상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윤선거는 학문과 사상에서 비판의 자유를 주장해 윤희를 두둔했으며, 1659년(현종 즉위)의 예송논쟁에서도 윤선거 부자는 송시열에게 동조하지 않고 윤희를 될 수 있는 대로 옹호했다.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와 송시열은 김장생(金長生) 문하에서 동문수학한 친구였다. 1629년에 윤선거의 아들로 태어난 윤증은 송시열보다 22년 아래였다. 윤증의 자는 자인(子仁)이고, 호는 명재(明齋)로 어려서부터 아버지 윤선거에게 주자학을 배웠다. 윤증은 9세에 병자호란이 발발해 그해에 강화도로 피신했는데, 이때 어머니가 자결하는 슬픔을 겪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딛고 그는 아버지 윤선거를 비롯해 유계(兪槩: 1607~1664)와 송준길(宋浚吉: 1606~1672), 그리고 송시열에게 수학하기 시작했다.

17세에 권시의 딸과 혼인한 그는 일찍이 과거의 뜻을 버리고 학문에 전념하였고, 36세가 되던 해에 뛰어난 학행으로 천거돼 내시교관(內侍敎官)에 발탁됐으나 사양하였다. 이때부터 말년까지 그에게는 여러 관직이 제수되고 81세인 1709년(숙종 35)에는 우의정에도 발탁됐다. 그러나 그는 실제 관직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윤증이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할 때, 아버지 윤선거는 그에게 송시열의 우뚝한 기상을 따라가기 힘들니 그의 장점만 배우되 단점도 알아두어야 한다고 가르친 적이 있다. 윤선거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을 송시열의 단점으로 보고, 여러 번 편지를 보내 깨우쳐 주려 하였다. 효종이 죽어서 모후(母后) 조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어야 하느냐 1년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벌어져 송시열과 윤후 사이에 심각한 알력이 생겼을 때, 송시열은 윤선거가 은근히 윤희를 편들었다고 원망했다.

그 후 1673년(현종 14) 윤선거가 죽자 윤증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자신의 스승인 송시열에게 제문과 묘비명을 부탁했다. 통상 그런 글을 쓸 때에는 죽은 사람의 결점은 덮어두고 좋은 점, 훌륭한 점만 가려내어 써주는 법이다. 그런데 송시열은 윤선거가 윤희와 한통속이었다는 것과 강화도의 일을 완곡하게 거론하며 은근히 험담을 했다.

강화도의 일이란 병자호란이 터져 강화도가 함락될 때에 그곳에 있던 윤선거의 작은아버지 윤전과 부인 이씨가 죽고 말았는데, 그때 윤선거가 살기 위해 구차스럽게도 변복을 하고 이름도 바꾸어 몰래 강화도에서 빠져나왔다는 소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송시열이 이 일을 들먹여 은근히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윤증이 죽은 이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고 하여 고쳐주기를 청하였으나, 송시열은 자구만 수정하고 글의 내용은 고쳐주지 않았다. 이 일로 인해 윤증과 송시열의 사이가 벌어져 큰 싸움으로 번졌다. 이로부터 사제지간의 의리가 끊어졌으며, 윤증은 송시열의 인격 자체를 의심하고, 송시열을 ‘의리쌍행(義利雙行: 의리와 이익을 같이 행하다)’, ‘왕패병용(王覇并用: 왕도와 패도를 병용함)’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윤증은 사국(史局: 조선시대 실록청·일기청을 합쳐 부르던 말)에 편지를 보내 아버지 일을 변명하고, 다시 율곡 이이가 초년에 불교에 입문한 사실을 인용하여 이이는 입산의 잘못이 있으나 자기 아버지는 처음부터 죽어야 할 의리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유생들이 쫓기하여 선현을 모독했다고 그를 성토했으로써 조정에서 시비가 크게 일어났다. 송시열이 변명의 상소를 올려 죄의 태반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고 그를 전과 같이 대우하지 말라는 교명을 내리게 되었다. 이것을 전후하여 사림과 간관 사이에 비난과 변무의 상소가 계속되고, 양파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송시열의 문도들은 윤증을 스승을 배반한 파렴치한으로 몰았고, 윤증은 아무리 스승이라도 아버지를 욕하는데 어떻게 참고 있으란 말이나며 항변했다.

이 사건을 회덕에 살고 있던 송시열과 니성에 살고 있던 윤증 사이의 다툼이라 하여 이른바 회니시비라 부르는데, 이것이 서인을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놓은 한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 책만 읽는 바보, 청장관 이덕무

최호

“남산 아래 바보가 살았다. 늘변(訥辯: 더듬거리는 말씨)이라 말을 잘못했고, 성격이 졸렬하여 세상일을 알지 못했으며, 바둑이나 장기 따위는 더더욱 몰랐다. 남들이 욕을 해도 따지지 않고, 칭찬해도 빼기지 않았으며, 오직 책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추위도 더위도 주림도 아픈 줄도 몰랐다.

글을 막 배웠을 때부터 스물한 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손에서 옛글을 놓은 적이 없었다. 그가 지내는 방은 매우 좁았다. 하지만 사방 모두 창이 있어 햇볕이 드는 밝은 창을 따라다니며 책을 보았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책을 보게 되면 기뻐 웃으니, 집안사람들은 그가 웃는 것을 보고는 곧 그가 기이한 책을 구하게 된 것을 알곤 했다.

그는 두보(杜甫: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의 오언율시를 특히 좋아해서 중얼거리는 것이 마치 병자의 앓는 소리와도 같았다. 그러다 심오한 뜻을 깨치면 너무 기쁜 나머지 일어나 방 안을 빙빙 돌곤 했는데, 그 소리가 마치 까마귀가 우는 것 같았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곳을 응시하기도 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사람들이 그를 ‘간서치(看書痴: 책만 보는 바보)’라 부르는데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이덕무, 『간서치전(看書痴傳)』 전문

이 글은 정조 때의 북학과 문인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쓴 자서전 『간서치전』의 일부분이다. 간서치란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이다. 평생 읽은 책이 2만 권이 넘었고, 베껴 쓴 책이 수백 권에 이를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한 선비였다. 그래서 얻은 별명이 ‘책만 보는 바보’, 간서치였다.

이덕무는 조선의 제2대 정종의 열다섯째 아들인 무림군 이선생의 14세손이었다. 조부는 강계부사 이필익이고, 아버지는 통덕랑 이성호였다. 어머니는 반남 박씨로 현감 박사렴의 딸이다. 그는 1741년(영조 17) 한성 중부 관인방에서 태어났다. 자는 무관(懋官), 호는 아정(雅亭)인데 이 밖에 형암(炯庵)·청장관(靑莊觀)이라는 호도 사용했다. 특히 즐겨 사용한 청장(靑莊)이라는 호

는 일명 신천옹(信天翁)으로 불린 해오라기를 뜻하는데, 청장은 맑고 깨끗한 물가에 붙박이처럼 서 있다가 다가오는 떡이만을 먹고 사는 청렴한 새라고 한다. 청장으로 호를 삼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성격을 상징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가난과 질병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의 재산은 쌀 십여 섬을 수확하는 천안군의 전장이 고작이었다. 그런데도 이 전장마저 소작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동생과 부모까지 모시고 있는 이덕무는 가난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집안이 언제부터 무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부 이필익과 막내동생은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러나 통덕랑을 지낸 부친 이성호는 세 아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이덕무는 집안이 가난하고 서자였기 때문에, 스승도 없이 혼자서 학문에 전념했다.

“지난 경진년과 신사년 겨울의 일이다. 내가 거처하던 작은 띠집이 몹시 추웠다. 입김을 불면 성애가 되곤 해, 이불깃에서 버석버석하는 소리가 났다. 내 게으른 성품으로도 한밤중에 일어나 창줄간에 『한서(漢書)』 한 질을 가지고 이불 위에 죽 늘어놓아, 조금이나마 추위의 위세를 누그러뜨렸다. 간밤에도 집 서북편 모서리로 매서운 바람이 쏘듯이 들어와 등불이 몹시 다급하게 흔들렸다. 한동안 생각하다가 『논어』 한 권을 뽑아 세워 막고는 혼자서 그 경제의 수단을 뿔내었다.”

이덕무,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이덕무가 26세 지은 『이목구심서』의 일부이다. 이 책은 귀로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입으로 말한 것,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적은 것이다. 그는 초가집이 통째로 얼어붙는 엄동설한에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으로 겨우 얼어 죽는 것을 면할 정도로 몹시 가난한 선비였다. 책을 사 볼 여유가 없어 남의 책을 빌려 보았고, 책을 읽은 뒤에는 반드시 그 책을 베껴 썼다. 그는 집안이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서얼 출신이어서 책을 읽는다 한들 벼슬길에 오를 수 없는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현실의 삶에 갇혀 살지 않고 책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끝없이 확장시켰다.

이런 노력 끝에 그는 학문에 비상하고 시문에 능해 젊어서부터 이름을 떨쳤다. 사후에 그의 행장을 지은 연암 박지원은 시문에 능한 이덕무를 기리며 “지금 그의 시문을 영원한 내세에 유포하려 하니, 후세에 이덕무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또한 여기에서 구하리라. 그가 죽은 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볼까 했으나 얻을 수가 없구나.”하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다.

이덕무는 청장이라는 별호에 어울리는 호리호리한 큰 키에 단아한 모습, 맑고 빼어난 외모처럼 행동거지에 일정한 법도가 있고 문장과 도학에 전념하여 이욕이나 잡기로 정신을 흐뜨리지 않았으며, 비록 신분은 서자였지만 오직 책 읽는 일을 천명으로 여겼다. 그는 26세 때 대사동으로 이사한 후, 서얼들의 문학동호회인 백담시파(白塔詩派)의 일원으로 유득공·박제가·이서구를 비롯하여 홍대용·박지원·성대중 등과 교류하였다.

학문적 재능에 비해 신분적 한계로 천거를 받지 못하다가 1779년 그의 나이 39세에 정조에 의해 규장각 초대 검서관(檢書官)으로 기용되면서 벼슬길이 열렸다. 거기서 그는 궁중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들을 교정하고 서사(書寫: 글씨를 베껴)하는 일을 했다. 책을 무단히도 사모하던 그의 적성에 딱 맞는 일이었다.

그가 평생 읽은 2만 권의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는 사실(史實)에 대한 고증부터 역사와 지리, 초목과 곤충,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한 규모의 저술로서 조선후기 대표적인 백과전서로 꼽힌다.